

'AI, 신약 개발의 미래 연다'

전북대 난치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연구소 심포지엄... 최신 연구성과 공유

인공지능(AI)과 실세계 데이터(RWD)를 활용한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이 기술이 환자 맞춤형 치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AI가 주도하는 의료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8일 전북대학교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소(소장 이용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북대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ITRC: RWD & AI-enabled Drug Development Symposium(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심포지엄은 AI와 실세계 데이터(RWD)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첫 자리로, 신약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폐암과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 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대 연구소는 10년 이상 축적된 장기 입원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맞춤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와 RWD를 접목한 실제 연구 사례가 다수 발표됐다. 장영우 코어인소프트 연구원은 AI 기반 폐 영상 분석 기술을, 서울아산병원 김남규 교수는 Real-World Evidence(RWE)를 활용한 의료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카



18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ITRC: RWD & AI-enabled Drug Development Symposium(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용철 전북대 난치성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스트 김우연 교수는 생생형 AI를 활용한 신약 설계 기술을, 전북대 Hibal Tayara 교수와 전북대병원 정재석 교수는 기도질환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자 검체 연구에 대한 최신 성과를 발표하며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용철 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AI는 정밀 치료와 신약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 됐으며, RWD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치료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연구진 간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정밀의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정밀의료 및 AI 기반 신약 개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의료적 담론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기술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작한 도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홍보 영상.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어르신들 배움의 현장 생생한 영상으로 담다

전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영상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글자를 쓰고 읽는 기초 문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활용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 문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문해교육 기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배움의 현장과 그동안 숨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사연을 소개한다.

특히 배우지 못해 겪어야 했던 설움, 배움 이후에 찾은 행복을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달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줬다.

90세의 이필순 어르신은 "돈을 찾으러 가나, 땀을 흘려 가나 내 손으로 못 배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못 배워

맞힌 한을 배운 사람들은 모른다"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73세의 박복임 어르신은 "돈을 찾으러 가면 글을 못 쓰니까 손을 붓대로 감고 갔다"며 지난날의 설움을 털어냈다.

김막자(83)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양연지(71) 어르신은 "책상에 앉아 연필 잡고 글을 쓰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각각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제작된 영상은 오는 21일 문해교육 졸업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배움 이후에 찾은 행복을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달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줬다. 90세의 이필순 어르신은 "돈을 찾으러 가나, 땀을 흘려 가나 내 손으로 못 배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못 배워

/장은성 기자

미래산업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 혁신교육 플랫폼

전북대, 1학기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OT



전북대학교 RISC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지난 17일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선발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RISC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지난 17일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선발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이교우 본부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일재 RISC미래수송기사업단장, 장민석 RISC에너지산업사업단장, 권오상 RISC생명·바이오사업부단장, 전용덕 우석대학교 RISC지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교우 본부장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증 수여식과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

수한 89명의 학생이 배출되면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이교우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 덕분에 정원 330명을 모두 모집할 수 있었다"며 "JST 공유대학은 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

해 미래 산업을 대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교육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계약심사로 70억원 절감, 사례집으로 만든다

전북교육청, '사례를 통한 계약심사' 발간... 지난해 560건 처리과정 책 속에 담다



'사례를 통한 계약심사' 책 표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사례를 통한 계약심사'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계약심사 제도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고, 계약 담당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제작됐다.

이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이번 책자에는 공사 251건, 용역 103

건, 물품 206건 등 총 560건의 심사 결과를 수록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는 설계의 오류 개선 및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전적 감사활동을 상시 추진한 결과다.

한편 전북교육청 올해 계약심사에 사전 자체점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유도해 전북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일 남원이음센터에서 제2차 남원발전포럼' 개최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이 주최하는 제2차 남원발전포럼이 오는 20일 남원이음센터에서 열린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모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남원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해답'이라는 주제로 남원시 기관 이전 유류부지 활성화 방안,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각각의 주제 발표는 전북대학교의 황인섭 교수, 안득수 교수, 김운영 교수가 맡는다.

이날 포럼에는 양오봉 총장과 권덕철 원장, 그리고 최경식 남원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토론을 통해 JBNU 전북발전연구원이 남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남원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는 시간도 갖는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전환·AI 융합교육이 '핵심'

디지털·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전북교육청, 2025년도 계획 수립... 디지털 튜터 지원 등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을 핵심으로 한 '2025년 디지털·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튜터 지원, 디지털 선도·연구학교 운영, AI 정보교육중심 학교 확대 등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을 통해 교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집중한다.

지난해 180개교·205명 규모로 운영되던 디지털 튜터를 올해는 250개교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권역별 튜터 양성 과정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선도·연구학교 운영 규모도 2024년 52개교에서 2025년 66개교로 확대하고, 이들 학교와 연계한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성공 모델

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과정 및 평가 방안을 현장에 맞게 설계하고, 컨설팅·설명회·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AI 정보교육중심학교를 95개교로 운영 범위를 넓혀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SW코딩 교육 시범 모델 도입·정보통신윤리교육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교사 역시 연수·모듈리 운영·참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학생 중심 수업과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AI 교육 혁신에 앞장서 전북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능형 기계부품 사업 참여 전주대 학생 12명 전원 취업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능형기계부품사업에 참여한 4학년 학생 12명이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졸업하는 지능형기계부품사업에 참여한 4학년 학생 12명은 산업공학과 전공교육과 특성화 3Star 교육과정인 신뢰성 설계-검증-평가 교육, 3D스캐닝 및 역설계 교육, 솔리드웍스 등의 교육을 통해 하킴그룹을 비롯한 우수한 기업에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전주대 산업공학과는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육성과 RISC사업 미래형수송기기 사업단 개발과제에 학생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기부단 신청하세요"

전문가·퇴직 교직원 등 대상... 유학생 기부단은 내달 중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기부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기부단은 사회적 자원을 유·초·중·고교 교육활동에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적 기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교육기부 모집대상은 과학, 공학, 예체능, 인성, 외국어, 방송연론, 경제, 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퇴직 교원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전북교육청 교육기부 누리집(www.jbe.go.kr/gbu)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saik89@jb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선정된

교육기부자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유학생 중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지역 유·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학생 기부단도 모집한다.

유학생 기부단은 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 중순 이후 대학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희망 유학생은 각 대학의 국제협력부 또는 국제교류과(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부 누리집(www.jbe.go.kr/gbu)을 참고하거나 교육협력과(239-3276)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선정된

/장은성 기자